

ART

# EXHIBITION NEWS

EDITOR 김정은

글래드스톤 서울

## 살보, 국내 첫 개인전 <SALVO, IN VIAGGIO>

글래드스톤 갤러리는 이탈리아 대가 살보(Salvo, 1945~2015)의 회화를 선보이는 개인전 <Salvo, in Viaggio>를 5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살보의 국내 첫 개인전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작가가 중동·북아프리카·유럽·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며 목격했던 실제 풍경과 상상 속의 환경을 묘사한 작품들로 구성되며, 198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제작된 작업들이 중심을 이룬다. 또한 작가가 생전에 먼 타지까지 여행을 즐겨다니던 큼직한 여행기가 그의 회화 및 전반적인 작품 세계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동시에 기억, 현실, 상상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을 제공한다. 전 세계 곳곳의 유적지와 작가의 상상에서 비롯된 풍경을 표현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여행이 살보의 회화에 끼친 장기적인 영향을 직관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되짚는다.

살보는 1969년 아프가니스탄을 시작으로 영감을 받기 위해 꾸준한 여행을 찾아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완성된 작업들은 특히 작가가 머물렀던 장소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작가의 세심한 관찰력은 화면에 포착된 현지 건축양식 또는 토착 식물의 형태에서 그 진가를 드러낸다. 실제로 1974년 오랜 친구인 알리기에로 보에티와 모로코를 방문하고 약 10년간 그리스, 터키, 구 유고슬라비아 영역을 여행한 뒤로 '오토마니아' 작업의 주요 모티브로 침투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오토마니아'는 작가가 창조한 신조어로, 주로 시칠리아, 노르만, 아랍 양식이 결합된 교회 건축물이 다양한 시간대에 묘사된 작업들을 가리킨다. 단순한 형태로 정제된 이러한 풍경들은 다채로운 색감이 돋보이는 살보의 독창적인 시각언어로 재해석되며 오랜 기간 전 세계 컬렉터와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이번 전시 역시 다양한 지리적·문화적·시간적 차원을 오가는 작품들을 통해 이탈리아 현대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살보의 고유한 유산을 조명할 예정이다. [www.gladstonegallery.com](http://www.gladstonegallery.com)



1



2

1 'Aprile', 2007, Oil on panel, 40.3×30.5cm, 42.5×32.4×3.8cm framed, © Archivio Salvo, Courtesy of Archivio Salvo and Gladstone, 사진: David Regen.

2 'Tre Colonne', 1990, Oil on canvas, 90×70cm, 93.7×74×4.4cm framed, © Archivio Salvo, Courtesy of Archivio Salvo and Gladstone, 사진: David Regen.

## 화이트스톤 갤러리 서울, 개인전 <INSOMNIAC CITY>

화이트스톤 갤러리 서울은 5월 31일부터 7월 20일까지 아루타 수프의 첫 한국 개인전 <INSOMNIAC CITY>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도쿄 신주쿠의 밤거리에서 영감을 받은 신작 회화와 네온 설치 작품을 통해 작가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쿄의 신주쿠, 그중에서도 환락가로 유명한 가부키초를 배경으로 걸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깊이와 공허를 품은 도시의 공기, 그리고 그 안에서 욕망과 불면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경은 이번 전시의 핵심적 배경이 된다. 아루타 수프는 이러한 풍경을 작가의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캐릭터 'ZERO(토끼)'를 통해 회화, 네온 그리고 그라피티 직감각이 혼합된 시각언어로 재구성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에이징 가공을 활용한 크롬 작품을 선보이며, 아시아 뒷골목 정서를 갤러리라는 정제된 공간 속에 녹여내는 실험을 시도한다. 강렬한 보색 대비와 리듬감 있는 색채 구성은 시선을 사로잡고, 동시에 편안한 색조의 작품들을 함께 배치해 전시 전체에 완급을 부여한다. 갤러리 4층 공간에는 작가에게 창작의 영감이 된 신주쿠의 밤을 이미지화한 몰입형 공간을 설치해, 관객들이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감각적 경험 속에서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루타 수프의 날카롭지만 유쾌한 시선으로 동시대의 도시성과 인간성을 담아내는 이번 전시는 깊이 있는 공감과 새로운 해석의 기회가 될 것이다.

[www.whitestone-gallery.com](http://www.whitestone-gallery.com)



What U See is What U Get, 2024, Acrylic paint on canvas, 128×128×4cm.

## 국립현대미술관, <아더랜드 II: 와엘 사키, 아크람 자타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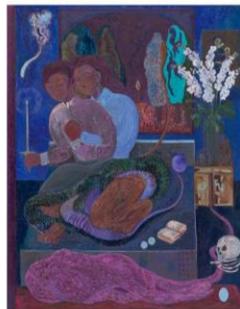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은 해외뉴미디어 소장품을 소개하는 MMCA 소장품 <아더랜드 II: 와엘 사키, 아크람 자타리>를 6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국제적 명성의 뉴미디어 작가 와엘 사키와 아크람 자타리 2인의 대표작 2점을 소개한다. 와엘 사키의 '드라마 1882'(2024)는 202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최고의 화제작으로 손꼽힌 작품이다. 이 작품으로 작가는 국제적인 미술 전문지 <아트 리뷰>가 선정한 '2024년 파워 100인' 중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크람 자타리의 '거부하는 조종사에게 보내는 편지'(2013) 역시 2013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레바논관 개인전을 통해 소개된 작품이다. 이번 출품작 2점은 베네치아 비엔날레를 통해 이미 국제적 명성을 얻은 작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소개된다. 와엘 사키와 아크람 자타리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탐구하고 그것을 재해석한 작품을 제작해왔다. 이번 전시는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역사적 주제를 다루는 현대미술가들의 태도와 그것이 반영된 동시대 뉴미디어 미술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시명인 아더랜드는 '다른 공간' 혹은 '다른 세계'를 뜻하는데 두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과거와 현재, 실제와 허구가 혼재되며 만들어진 다층적인 공간과 이야기 세계를 뜻한다. [www.mmca.go.kr](http://www.mmca.go.kr)



1 와엘 사키, '드라마 1882', 2024,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48분 16초, ed.57, 국립현대미술관 발전 후원위원회 기증,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2 아크람 자타리, '거부하는 조종사에게 보내는 편지', 2013, 영상 설치: 단채널 영상(x2), 컬러, 사운드 무음: 빈티지 의자 1개, 스피커 8개, 영상 35분 58초, 1분 20초, 빈티지 의자 85×56×44cm, 스피커 44×37.5×37.5(x8), ed. 57,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국제갤러리, 그룹전 <Next Painting: As We Are>

국제갤러리는 6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K1과 K3에서 그룹전 <Next Painting: As We Are>를 개최한다. 젊은 작가 6인의 회화를 통해 '회화 이후의 회화', 즉 도래할 '다음 회화'를 가능하고자 하는 이번 전시에는 고동어, 김세은, 유신애, 이은세, 전병규, 정이지가 참여한다. 전시는 작가들이 포착하는 이미지의 특성과 회화적 물성을 교차시키는 지 주목하며, 이미지 과잉 시대에 회화가 확보할 수 있는 비판적 위치를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이번 전시는 앞으로 다가올 '다음 회화'가 디지털 이미지의 쓴살같은 가속도를 거스르며 느린 속도의 감각 경험과 물질적 실체로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담지할 것임을 주장한다. 오늘날 이미지는 실재에 충실하기보다 시선을 압도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범람하는 바이얼 이미지는 알고리즘이나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다시 현실을 재구성한다. 이는 현실이 이미지의 프로토콜에 맞춰 재조정되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속도가 기준이 되어버린 디지털 환경과 회화 매체 특유의 느린 시간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이 동시대 젊은 작가들의 작업 속에서 표출되는 방식에도 주목한다. [www.kukjegallery.com](http://www.kukjegallery.com)



고동어(b. 1984), 'Room tone\_그 뱀이 허물을 벗었다', 2025, Oil on canvas, 162.2×130.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 리만머핀 서울, 추상작가 4인 전시 <네모: Nemo>

리만머핀은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해온 저명한 추상작가 4인의 전시 <네모: Nemo>를 소개한다. 참여작가는 맥아서 비니언, 정상화, 스탠리 휘트니, 윤형근으로 이들은 1970년대부터 격변의 시대를 살아오며 각자의 방식으로 추상회화를 깊이 있게 탐구했다. 4명의 작가는 서로 다른 문화권과 시대적 배경을 지녔지만 그들의 작업에는 공통적으로 형식에 대한 치열한 고민, 정체성에 대한 질문, 사회적 기억에 대한 성찰이 스며있다. 이번 전시는 이들의 추상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의 흔적이자 시대의 증언으로 가능하며, 추상이 감정과 기억의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전시 제목 '네모(Nemo)'는 사각형을 뜻하는 순우리말 '네모'에서 출발했으며, 동시에 라틴어로 '아무 것도 아닌', '누구도 아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네모'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넘어 정체성과 서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전시에 소개되는 회화 속 '네모' 형상들은 반복되며 격자 무늬(그리드)를 이루거나 하나의 독립적인 형태로 남아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네 점을 선으로 잇는 단순한 도형인 '네모'는 평면적인 상징을 넘어 작가들에게는 추상이라는 보편성을 시각화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로 기능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사적인 서사를 넘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사회적 인 기억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www.lehmannmaupin.com](http://www.lehmannmaupin.com)

맥아서 비니언, 'DNA-연구(사각적귀)', 2022, 보드에 잉크, 페인트 스틱, 종이, 72×48inch, 182.9×121.9cm, 작가와 리만머핀, 뉴욕, 서울, 런던 제공.